5·18영화제 대상 '오늘의 안부'

제3회 영화제 개막식·시상식
최우수상 '기억' 등 3편 선정
5·18 역사적 상흔 기억·소환
19일까지 30편 온라인 무료 상영

제3회 5·18영화제 대상을 차지한 '오늘의 안부' 스틸컷.

지난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5·18 영화제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5·18영화제는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5·18을 되돌아보고,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스마트폰과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행사다.

5·18영화제는 5·18은 물론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제로, 5·18 주간 동안 출품된 작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상영된다.

이번 제3회 '5·18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총 30편이다. 5·18의 역사적 상흔과 기억을 다룬 영화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영상들과 아동 인권, 학급 내 따돌림, 독거노인, 경비노동자, 불법체류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등 이 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 영상들이 출품됐다.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제3회 5·18 영화제 개막식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장광근 감독의 '오늘의 안부'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오늘의 안부'는 시 낭독과 함께 40년 전 사라진 친구가 주인공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5·18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현재와 연결해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5·18의 역사적 상흔과 기억을 소환해 화석화된 과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환기하려는 주제의식과 영화제의 지향성에 맞다면서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우수상 작 '기억' 스틸컷.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심하늘 감독의 '기억', 양선민 감독의 '층간화음', 박종웅 감독의 '스틸' 등 3편이 이름을 올렸다.

'층간화음'은 학급 내 따돌림 문제를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스틸'은 코로나 시대 아티스트들의 좌절과 새로운 희망을 다룬 점, '기억'은 5·18민중항쟁 이후 무기력함소에서도 의미와 희망의 메세지를 길어 올렸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상에는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이준철 감독의 '센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5·18을 그린 김이안·최려은 감독의 '상사화: 낙화유수', 미국에 사는 러시아 불법체류자를 그린 글렙 오사틴스키 감독의 '아웃사이더', 안산 선감학원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태양 감독의 '섬 친구를 그리다'가 선정됐다.

'아웃사이더'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클렙 오사틴스키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해외 영화제에서도 주목받을 받은 바 있어 5·18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장려상 4편, 심사위원장상 1편 등이 선정됐다.

수상작과 본선 진출작 등 30편은 오는 19일까지 (주)씨네허브컴퍼니(www.cinehubkorea.com)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드라마史 한 페이지 장식해 영광"

최근 종영 '태종 이방원' 주상욱
"김영철 선배처럼 KBS 자산 될것"
동물 학대 논란 "마음 타들어가"

주상욱

"언젠가는 또 다른 이방원이 나올 테지만, 드라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제가 장식한 게 아닐까 싶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최근 종영한 KBS 1TV 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주인공 이방원을 연기한 배우 주상욱(44)을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났다.

그는 KBS에서 5년 만에 선보인 대하사극의 타이틀롤이란 자리가 부담이 컸지만, 그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연기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해보고 싶었거든요. (웃음) 제가 김영철·유동근 선배님을 이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드라마만의 색깔을 가진 이방원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주상욱은 고려의 관료에서 조선의 왕자로, 또 왕세자를 거쳐 국왕, 그리고 선왕이 되기까지 이방원의 다사다난한 인생을 연기해냈다.

그는 젊은 이방원은 철없고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그 이후엔 위치에 따라 무게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가 아는 이방원은 소위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킬방원' 정도였고, 정확하고 세세하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사람 이방원, 가장으로서의 이방원을 연기하면서 '알고 보면 이 인생도 참 고단하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그렇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효령대군 같은 삶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태종 이방원'은 왕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방원이나 한 나라 군주로서의 태종 모습보다는 '인간 이방원'에 보다 집중해 호평받았다. 극 초반 고려의 관료로 일하던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반란 이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K-직장인 이방원'이란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상욱은 "조선시대여도 다 사람 사는 얘기 아니겠나"라며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 속 이방원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연기를 하면서 김영철 배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영철 선생님은 사극에 있어서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초반에 대단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냥 말 한마디만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만 '태종 이방원'이 기존 대하사극과 달리 32부작의 짧은 분량으로 방영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이야기는 이만큼(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고 일어나면 3년, 5년이 지나있게 된 거죠. 어떨 때는 한 회에 두 명도 죽었는데요. (웃음) 최소한 50회 정도는 해야 주변 인물들의 서사나 인물 간 관계, 이런 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쉽네요."

낙마 장면에 동원된 말이 죽어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한 달간 방영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 갔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사극의 재미를 느꼈다는 그는 "꼭 왕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인물들을 또 연기해 보고 싶다"며 20년 뒤에는 김영철과 같은 'KBS의 자산'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문용동·김군…민주화 투쟁 동지들의 이야기

'애꾸눈 광대' 이지현씨
'어느 봄날의 약속' 발간

'애꾸눈 광대'는 80년 5월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주투사가 된 이지현 씨의 이야기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연극이다. 지난 2010년 5월27일 금남로에서 1인극 형태로 처음 선보인 이후 시민들의 응원이 더해져 2인극, 3인극, 6인극, 8인극, 10인극으로 진화해갔다. 2012년부터는 매년 10회 이상 공연을 무대에 올릴 만큼 5월 광주를 상징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지현 씨가 이번에는 연극이 아닌 책으로 광주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

최근 이 씨는 동지들의 투쟁을 기록한 '어느 봄날의 약속'(시와사람)을 발간했다.

'눈물로 쓴 애꾸눈 광대의 희망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에는 저자의 지난한 삶은 물론 민주화투쟁을 함께 했던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최근 연극으로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심금을 울린 문용동 전 도사를 비롯해 김군, 5·18 묘지 음모사건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죽은 누이동생의 스토리가 나온다.

또한 안기부에 끌려가 겪은 고초와 강제퇴원과 자실기도, 카톨릭센터에서의 농성과 안기부의 폭거 등도 담겨 있어 5월의 상흔과 아픔, 고통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수배시절의 고초는 물론 명동성당 농성, 7공수 출신 최영신의 양심선언, 상경투쟁과 최기식 신부와의 만남 등도 소개돼 있다.

이 씨는 80년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5·18민중항쟁이 일어나자 부보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왔다가 계엄군에 의해 한쪽 눈을 잃었다. 이후 5·18부상자동지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5·18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그는 전두환 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광주에 재판받으러 오는 날까지 5·18 진실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책에 대해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이 책이 민주주의를 향한 나침반이자, 상처와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고 평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0년 '문예시대'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왔다. 시집 '당신의 눈물도 행복입니다'를 펴냈고 뮤지컬 '너릿재 아리랑' 예술감독을 맡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언니들 브이로그 토크쇼, SBS '경아윤아의 브런치톡' 선보여

SBS TV는 모델 송경아와 아나운서 이윤아의 정보 토크쇼 '경아윤아의 브런치톡'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경아윤아의 브런치톡'은 '브이로그'(Vlog·개인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형식을 접목한 토크쇼로, 뷰티부터 여행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MC를 맡은 송경아와 이윤아는 출연자들의 브이로그를 통해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또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이윤아(왼쪽)와 송경아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